

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(4.2.)

-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 - 먼저,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
 -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·수도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습니다.
 - 각 부처와 공공기관, 기업들도 관련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일상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.
 - 또한,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하겠습니다.
 - 우선 설비·시설 복구, 사료구매,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하여 4천억원 이상 지원하겠습니다.
 - 농작물·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,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희망시 50% 선지급합니다.
 -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, 세금, 전기·통신 요금, 4대보험료 등을 감면·유예*하겠습니다.
- * 일반재난지역 : 국세·지방세·국민연금 등 23개 납부 유예·감면
특별재난지역 : 일반 23개 + 건보료·전기료·통신료 등 13개, 총 36개
-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하겠습니다.
-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“경제의 시계”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
 - 이에 따라 정부는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“필수 추경”을 제안드렸습니다.
 -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.

[2025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] [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]
[민생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]

-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
배추·무 등 일부 채소류 강세, 가공식품 가격인상 등으로
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2.1%를 기록했습니다.
-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.
- 4~5월중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
배추와 무는 수급안정을 위해 매일 100톤 이상 시장에 공급합니다.
-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통해
식품 원자재 가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.
- 공공요금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
- 전기·가스·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
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
상반기 중 동결토록 하겠습니다.
-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안부를 중심으로
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.
-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.
-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
산지 소비지 직배송시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.
-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
-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
담합을 통한 식품·외식 등 민생밀접분야의
가격 인상을 엄단하겠습니다.

[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]

[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]

□ 이와 함께 혁신 산업의 육성과

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

□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첨단 바이오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.

- 5월부터 민관합동 'R&D 추진기획단*'을 출범하여
국내 유행 가축전염병, 반려동물 난치성질환 치료제 등
첨단 의약품을 중심으로 혁신형 R&D를 추진합니다.

* 농식품부, 검역본부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, 제조·벤처기업, 대학·연구소 등 참여

- 품목허가 신청 전에 유효성·안전성 자료를 사전 검토하는 등
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.

- 국제 표준 제조·품질관리기준(GMP)* 중 미시행중인 항목(8개)은
'3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도입하겠습니다.

* (시행 : 3개) ①기준일탈 등 조사, ②자율점검, ③작업소 청정도 관리

(미시행 : 8개) ①GMP 적합판정, ②자동화장치 관리, ③변경관리, ④연간품질평가,

⑤시판 후 안정성시험, ⑥품질보증체계, ⑦적격성평가, ⑧밸리데이션

□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활용이 더욱 간편해지도록
이번주(4.4일)부터 '정책금융 통합 플랫폼'을 가동합니다.

- 이를 통해 9개 정책금융기관의 400여개 금융상품을
한군데에서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.

- 또한, 각 금융기관별 홈페이지와 연계하여
신청 및 전문상담까지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이어서, 농식품부 장관, 해수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
(농식품부 장관, 해수부 장관 모두발언)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